

참고 7.

최근 저축은행 손실흡수력 및 유동성 대응능력 평가¹⁾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이 크게 저하된 수준을 보이고 있는 데다 부동산PF 구조조정 관련 불확실성도 남아 있어 향후 저축은행 업권의 경영불안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하에서는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력과 유동성 대응능력을 평가하고 관련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력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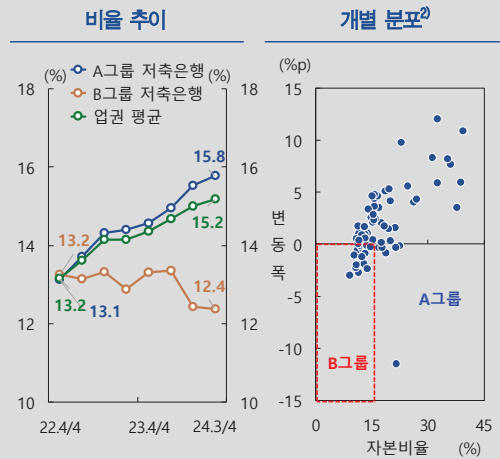
**업권 전체의 손실흡수력은 양호한 수준이나,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손실흡수력이 약화**

저축은행 업권의 평균 자본비율²⁾은 경영실적 악화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2024년 3/4분기말 15.2%로 감독기준³⁾(7%, 총자산 1조원 이상 8%)을 상회하고 있으며, 개별 저축은행들의 자본비율도 모두 감독기준을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2024년 3/4분기말 기준 자본비율이 업권 평균을 하회하는 저축은행들 가운데 자본비율이 2022년말 대비 하락한 저축은행의 수가 21개사에 이르고 있다. 이를 제외한 저축은행들을 ‘A그룹’ 저축은행, 앞서

언급한 21개 저축은행을 ‘B그룹’ 저축은행⁴⁾으로 나누어 두 그룹의 자본비율 변화를 살펴보면, 2022년 말에는 서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나 이후 A그룹 저축은행은 상승세, B그룹 저축은행은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양 그룹 간 격차가 지속적으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참고 7-1).

참고 7-1. 저축은행 BIS기준 자기자본비율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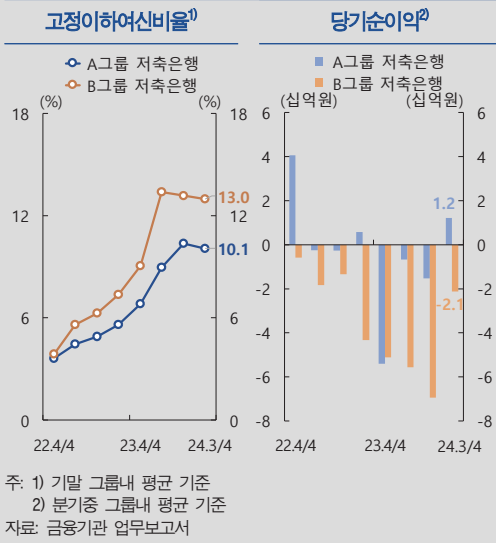


주: 1) BIS기준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
2) 2024년 3/4분기말 자본비율(가로축)과 동 비율의 2022년말 대비 변동폭(세로축)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B그룹 저축은행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PF대출 취급 비중 등으로 자산건전성⁵⁾과 수익성의 악화 정도가 A그룹 저축은행보다 더 커 자본비율도 상대적으로 취약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3/4분기의 경우에도 A그룹 저축은행들은 대손상각비 축소 등에 힘입어 당기순이익이 흑자로 돌아선 반면 B그룹 저축은행들은 적자를 지속하였다(참고 7-2).

1) 본고는 김정미·문지희·방누리(중소금융분석팀)가 작성, 신준영(금융기관분석부장)·문용필(중소금융분석팀장)이 검토하였다.
2)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 기준이다. 이하에서는 자본비율, 자기자본 및 위험가중자산을 모두 BIS기준으로 기술하였다.
3) 감독당국은 감독기준+3%포인트를 권고치로 하여, 개별 저축은행이 권고치 이상의 자본비율을 유지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4) 2024년 9월말 기준 업권 전체 총자산에서 B그룹 저축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17.1%이다. 이들의 평균 총자산 규모는 1.0조원으로, A그룹 저축은행(1.7조원)에 비해 작은 편이다.
5) B그룹 저축은행은 평균 고정이하어신비율이 2022년말 3.9%에서 2024년 3/4분기말 13.0%로, A그룹 저축은행(3.6% → 10.1%, +6.5%포인트)보다 큰 폭(+9.1%포인트) 상승하였다.

참고 7-2. 저축은행별 자산건전성 및 수익성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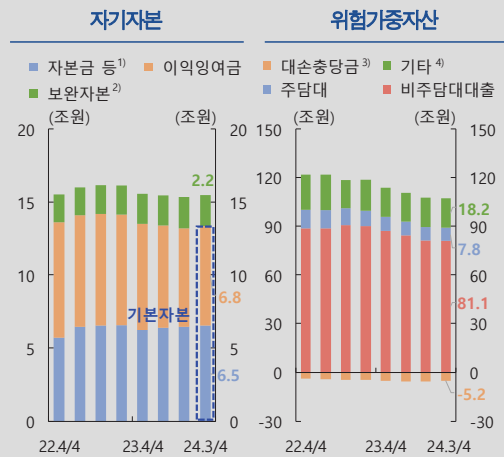
자산 축소로 수익기반 약화, 위험추구 확대 우려

저축은행 업권은 적자 누적에 따른 자본비율 하락 위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위험가중자산을 상당폭 축소하였다. 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을 살펴보면, 2023년부터 발생한 적자가 누적되면서 이익잉여금이 2022년말 7.9조원에서 2024년 3/4분기말 6.8조원으로 1조원 이상 감소하였다. 다만, 증자(+0.5조원), 보완 자본 확충(+0.3조원) 등을 통해 2024년 3/4분기말 기준 전체 자기자본 규모는 2022년말과 같은 15.5조원을 유지하였다.

한편 위험가중자산⁶⁾의 경우 2024년 3/4분기말 102.1조원으로 2022년말(117.9조원) 대비 15.8조원 감소하여 저축은행의 자기자본비율 제고를 견인하였다(참고 7-3). 저축은행들은 대출태도 강화를 통해 신규대출

을 억제하는 한편 부실채권 매각을 진행하면서 적극적인 자산 감축(deleveraging)을 추진해 온 것으로 보인다.⁷⁾

참고 7-3. 저축은행 자기자본 및 위험가중자산 잔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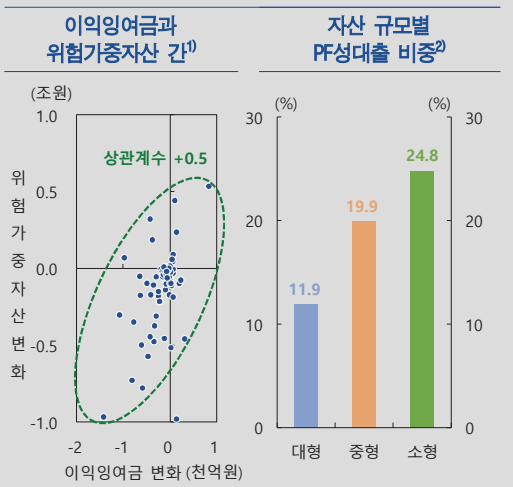
개별 저축은행을 보더라도 2022년말 이후 수익성 저하에 따라 상당수 저축은행에서 이익잉여금이 감소하였으며, 이익잉여금이 크게 감소한 저축은행일 수록 자본비율 유지를 위해 위험가중자산을 적극적으로 축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자산규모 축소는 자본비율 제고에 도움이 되겠지만 수익기반을 약화시켜 경영실적 개선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금융여건 등이 완화 될 경우 과도한 수익추구행위를 유발하여 금융시스템의 잠재리스크를 높일 우려가 있다. 실제로 저축

6) 대출금 잔액에 해당 위험가중치를 적용한 위험환산액 기준이다. 위험가중치는 주담대의 경우 위험도에 따라 35-100%를 적용하는 반면 비주담대는 전액(100%)을 위험가중자산으로 합산한다. 비주담대 중 PF대출의 경우 대출한도 초과분에 한해 120-150%를 적용하나 2023년 2/4분기부터 해당 잔액은 없다.
7) 대출자산은 2022년말-2024년 3/4분기말 기간중 부동산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기업대출이 18.0조원 감소하였을 뿐 아니라 가계대출도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0.7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의 과거 대출 행태를 살펴보면, 2018년말 기준 상대적으로 자산규모가 작고 수익기반이 약했던 소형 저축은행일수록 코로나 기간중 저금리의 풍부한 유동성을 활용하여 PF대출 등 위험자산을 적극적으로 늘렸던 것으로 나타났다(참고 7-4).

참고 7-4. 저축은행 수익기반에 따른 위험자산 운용 변화



주: 1) 2022년말~2024년 3/4분기말 기간중 이익잉여금 및 위험가중자산 잔액 변화폭(단, 위험가중자산이 1조원 초과 감소한 이상치 제외)
 2) 2018년말 총자산 규모(2조원 이상 대형, 1조원 이상 중형, 1조원 미만 소형)에 따른 2024년 2/4분기말 PF성대출(PF대출 및 토담대) 비중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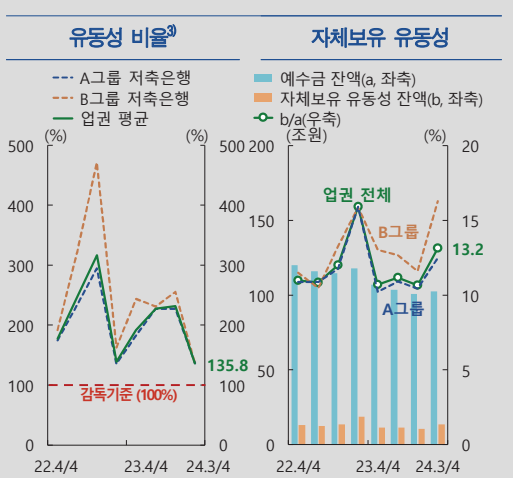
저축은행의 유동성 대응능력 평가

유동성 비율 및 자체보유 유동성은 양호한 수준

저축은행의 유동성 비율 및 자체보유 유동성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저축은행 업권의 유동성 대응능력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유동성 비율(업권 평균)을 살펴보면, 유동성 부채 규모의 변동폭이 큰 편이나 유동성 자산의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면서 감독기준을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다. 자체보유 유동성⁸⁾은 예수금 대비 10%(중앙회 권고 기준) 이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4년 3/4분기 말에는 13.2%(업권 평균)까지 상승하였다.⁹⁾ A그룹과 B그룹 저축은행으로 나누어 살펴보더라도, B그룹 저축은행들의 유동성 비율은 A그룹 저축은행들과 비슷한 수준이며 예수금 대비 자체보유 유동성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이들 저축은행의 유동성 대응 능력은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¹⁰⁾(참고 7-5).

참고 7-5. 저축은행 유동성 비율¹⁾ 및 자체보유 유동성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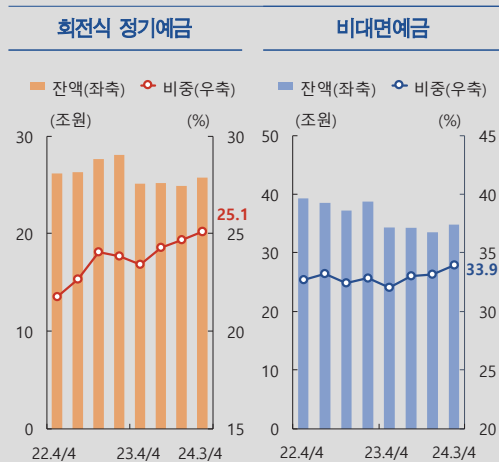
주: 1)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유동성자산/유동성부채
 2) 현금·예치금(지준 제외) 및 단기매매증권의 합산 규모
 3) 저축은행은 감독규정(제40조의4)에 따른 규제비율 100% 적용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8) 자체보유 유동성은 위기 발생시 비교적 즉시 유동화가 가능한 현금 및 예치금(지준 제외)과 단기매매증권의 합계 금액으로 정의하였다.
 9) 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예금 중 10% 정도가 동시에 인출될 경우 예금인출 사태(뱅크런)의 위험 신호로 인식하고 있다.
 10) 한편 저축은행의 지급준비예치금 및 일반예탁금으로 산정한 중앙회의 개별 저축은행에 대한 유동성 지원 가능액도 2024년 3/4분기말 기준 10.2조원에 이르고 있어 예금인출 사태 발생시 중앙회로부터의 유동성 공급도 가능한 상황이다.

예금 특성에 따른 유동성 리스크 증가에는 유의할 필요

저축은행의 회전식 정기예금¹⁾이나 비대면 예금 등 예금의 특성을 고려할 때 유사시 예금인출의 규모가 과거에 비해 커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전체 예금에서 회전식 정기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말 이후 꾸준히 상승하여 2024년 3/4분기말 기준 25.1%를 기록하고 있다. 예금인출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비대면예금(인터넷+모바일뱅킹)의 비중 또한 2024년 3/4분기말 기준 33.9%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참고 7-6).

참고 7-6. 저축은행 회전식 정기예금 및 비대면예금¹⁾ 잔액 및 비중²⁾



주: 1) 인터넷+모바일뱅킹
2) 전체 예금에 대한 비율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시사점

저축은행의 자본비율은 최근의 자산건전성 악화 및 수익성 저하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저축은행들의 손실흡수력은 오히려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자산 축소로 인해 장기적인 수익창출능력이 훼손되고, 이에 따라 과도한 수익추구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유의하여 저축은행들의 경영 상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편 저축은행의 유동성 대응능력은 전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개별 저축은행들은 예금인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가용자금인 금융기관 예치금 등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인출시태 발생시의 유동성 대응계획(BCP)도 꾸준히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업권 전반의 유동성 대응능력 확충을 위한 여타 회원사 및 중앙회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 방안 등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

11) 회전식 정기예금은 예금 만기 후 원금과 이자가 자동으로 재예치되어 동일한 조건으로 새로운 예금 기간을 시작하는 정기예금으로, 통상 만기가 2~5년이나 1년 단위로 회전주기마다 자유롭게 해지가 가능하다. 회전주기 도래시 이자가 지급되고 원금이 금리를 조정하여 재예치되므로 매 회전주기(1년)가 실질 만기에 해당하지만, 전체 계약기간상 만기를 기준으로 유동성을 계산함에 따라 실질 부채만기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